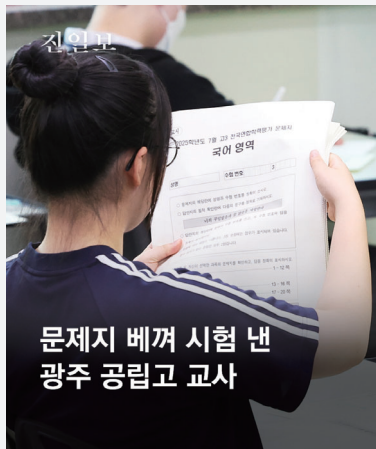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광주 고교 수험시험서 문제지 베껴 출제



문제지 베껴 시험 낸
광주 공립고 교사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 문제절반이 참고서를 베낀 걸로 드러났다. 광주 풍암고 1학년 기말수학시험에서는 총 22문항 중 12문항이 시중 참고서를 '복붙'한 문항으로 확인됐다. 지문·정답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만 객관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험 문제는 수학교사 3명이 공동 출제했으며 정년이 3년 남은 A교사가 문제 대부분을 출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참고서를 그대로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는 문제된 12문항만 17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나머지 성적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등급이 바뀔까봐 불안해하고, 학부모들은 "잘못은 교사가, 피해는 학생이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없앤다



AI 복붙 영상 '돈 안줘'
인급동은 이제 폐지야

유튜브가 AI 양산 콘텐츠에 수익창출을 제한하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인급동) 서비스를 조만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수익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비정상 콘텐츠를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AI로 만든 반복적·저품질 콘텐츠, 재활용·복제 영상은 광고 수익이 불가해 지는 것이며 오랫동안 운영되던 '인급동' 탭은 이달 말까지 폐지된다. 유튜브 측은 이에 대해 수익 제한 기준은 콘텐츠의 반복성, 품질, 진정성 부족에 초점 맞춘 것으로 AI에 관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인급동의 경우 개인의 취향을 보다 존중해 포괄적인 '인기 영상'이 아닌 카테고리별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생활문화 한가득"… ACC, 수장고 공개



ACC 비밀의 방
수장고 속 유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주년을 맞아 비밀 창고였던 아시아 문화박물관 수장고를 최초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외 교류를 통해 기부받거나 수집한 동남·중앙·서·남아시아 문화예술품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이다. 지난 10년간 모은 아시아 문화예술품이 무려 1만9017점으로, 동남아 1만8625점·중앙아시아 377점·서아시아 12점·남아시아 3점 등이다. 특히 과거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식민지배 시절 수집한 유물이 가득해 16~20세기 인도네시아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화재들은 본 소유자인 네덜란드 누산타라 박물관이 폐관하면서 ACC로 반입됐다. ACC는 오는 10월 중앙아시아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다.

해송 뿌리째 뽑히고… 신안 우전해수욕장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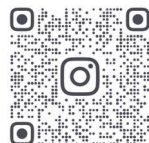


신안 우전해수욕장
해안 침식으로 폐쇄

전남 신안군 중도 '우전해수욕장'이 해안 침식으로 붕괴 중이다. 곰솔 숲은 뿌리째 뽑히고, 산책로는 무너졌으며, 토사도 흘러내리는 중이다. 심지어 거센 파도로 유명한 서해담지 없게, 동해처럼 너울성파도가 밀려오기도 한다. 우전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과 인접한 '람사르 습지 등록' 생물 다양성 핵심지역으로, 10만 그루의 해송이 연출하는 한반도 숲과 해저 유물 발굴지 등 생태·역사 자원을 가진 곳이다. 침식은 해수면 상승과 1970년대부터 이뤄진 대규모 모래 채취, 해안도로·인공구조물 난립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안군은 매년 모래 보충 작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303 주황색과 신체 그리고 주목성

주황색은 완화 작용 효과 유발

●색과 신체

페레(Fere)는 인체 근육의 반응을 연구했는데, 주황색은 35개 근육의 강도를 늘린다. 그러나 스펙트럼의 따뜻한 색상들은 자극을 주는 반면, 차가운 색상들은 긴장을 풀어 준다.

빛의 색에 따라 근육이 긴장하거나 이완이 되는 근육 현상을 데이터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라이트 토너스 값'이라고 한다. 근육이 가장 이완하고 있을 때의 값은 23이다.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주황색은 35이다.

주황색은 완화 작용의 효과를 유발한다. 신장(腎臟)을 깨끗하게 할 정도로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황색의 환경은 배변과 방뇨를 활성화한다. 변비에 걸려 있다면 주황색을 이용하면 좋다. 감귤류의 과일은 가장 활성적인 진동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감귤류의 과일을 주스로 섭취할 때 다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몸속에서 더 많은 산(酸)을 생성케 한다.

●색채와 푸르킨제 현상(Purkinje effect)

독일의 심리학자, 조직학자, 생리학자인 푸르킨제(Purkinje, Jan Evangelista, 1787년~1869년)는 1823년 자신의 이름을 딴 현상을 발표하였다. 이 현상은 주위의 밝기에 따라 물체에 대한 색의 명도가 변화되고,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이동할 때 또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나타난다.

특히 낮의 빨간 물체는 약한 빛에서 검게 보이고, 주위의 밝기에 따라 물체에 대한 색의 명도가 변화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나타나고, 푸르킨제의 활용으로 사라진 색의 순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순이다.

도로 표지판이나 비상계단의 표시

는 주목성과 명시성을 이용한 것이 푸르킨제의 현상이다. 색의 항상성은 일종의 색순응 현상이고, 색각 항상이라고 한다. 빛의 강도와 조건이 달라져도 색을 본 대로 느끼는 현상이다.

푸르킨제 현상을 예로 들면, 주황이나 빨강은 한낮의 햇빛 속에서 돋보이는 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둠침침한 빛 속에서는 녹색이나 파랑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색채와 주목성

주의 가치(attention value)는 사람의 눈에 자극을 주어 눈길을 끄는 색의 성질이고, 단일 색상에 대한 자극성을 말하며, 보색 관계에 있는 색채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일어나고, 객관적인 표시는 곤란하다.

주목성이 강한 색의 순서는 주황이고, 그다음으로는 빨강, 노랑, 연두, 파랑, 초록, 검정, 보라, 회색이다.

시인성이 높은 색은 주목성도 높이고, 따뜻한 난색은 차가운 한색보다 주목성이 높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주목성이 높고, 원색일수록 주목성이 높다.

하양 배경에서 주목성이 높은 색의 순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순이다. 회색 배경에서 주목성이 높은 색의 순서는 노랑, 빨강, 주황, 파랑, 초록, 보라의 순이다.

검정 배경에서 주목성이 높은 색의 순서는 노랑, 주황, 빨강, 초록, 파랑, 보라의 순이다.

아담스(Adams, H. E.)는 하얀 종이 바탕에 표준색을 붙이고, 이것을 피험자의 그룹에 한 번씩 보여주었다. 이 실험은 태양광선 아래에서 행해졌는데, 피험자들이 최초로 주목한 색채에 대한 보고서이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